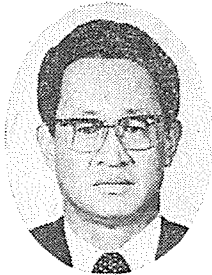


環境保全의 生活化

破壞原因行爲 最少化에 努力



盧 在 植

〈博士·韓國原子力研究所環境部長〉

盧 在 植 博士

1. 序 言

要 約

自然保護運動을 통해서 터득한 가장 값진 收獲은 쓰레기를 줍는 일 보다는 애당초 버리지 않 게끔 하는 길이 가장 效果의이라는 結論이었다.

自然保護를 포함한 環境保全에 있어서도 똑같은 理論이 成立한다. 즉 環境오염이나 環境과피 등 環境보전에 逆行하는 모든 原因行爲만 없앤 다면 그 많은 人力과 時間의 浪費는 事前豫防할 수 있다고 본다.

經濟成長과 더불어 生活水準도 많이 向上되었다. 그러나 生活水準의 向上에 比例해서 資源의 需給量도 늘고 消費生活도 늘기 마련이다. 또 이에 比例해서 환경질서의 파괴도 증대할 것이다. 모름지기 모든 環境과피 原因행위를 源泉的으로 防止 最少化하는 슬기와 努力을 實地로 生活化함으로써 生活環境의 질을 保全해야 할 것이다.

環境保全을 포함한 科學의 生活化라는 말이 최근에 자주 일고 있다. 아마도 70年代初에 들어와서 科學技術處가 꾸준히 밀고온 3大施策의 하나인 科學技術 風土造成事業의 一環이라고 보여진다.

그러나 科學의 生活化·大衆化 또는 國民生活의 科學化 등의 性格에 대해서 그간 펼친 啓蒙事業을 통해서 보던 주로 初中高校의 教師와 學生層을 對象으로 하는 科學館의 運營 및 科學展의 開催라든가 主婦를 對象으로 하는 主婦教室·主婦生活講座 등의 運營 또는 農民을 위한 새마을 技術支援 등으로 要約되는데 이 事業은 國民生活의 科學化라고 보기보다는 部分的인 國民만을 對象으로 해서 展開해 온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다.

즉 國民生活의 科學化란 원래 主婦를 主로 하는 住民을 비롯해서, 學生, 公職者(특히 經濟計劃과 國土開發 利用計劃 및 產業計劃立案者등)

企業人, 言論人, 科學, 技術人, 法曹人 등 모든階層의 국민을 두루엮는 幅넓은 大衆生活의 科學化요 科學의 生活化를 目標로 하는 것이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本小考에서는 環境保全의 生活化를 深度있게 展開하기 위한 各社會構成要素別 主要骨子를 提示하고 그의 實質의인 展開에 加速度를 添加시키고져 試圖하고져 한다.

2. 우리나라의 環境汚染現況

環境汚染의 現況이 孕胎하고 있는 現實의 深刻性을 把握하고 理解하지 못하는 限 環境保全의 意義나 深刻性에 대한 實感도 나지 않겠거니와 더욱이 環境保全의 生活化를 期待할 수 없을 것이라고 判斷되어 오늘날의 우리 나라 環境汚染實態를 要點만 羅列式으로 提示하여 보겠다.

가. 大氣汚染現況

法定 環境基準이 0.05ppm인 SO_2 의 大氣內濃度는 서울에서 中心商業地帶인 경우 0.071ppm 이상이며 특히 光化門近方에서는 85.3%가 環境基準을 超過하고 있는 實情이다. 또 比較의 淸淨한 것으로 알려진 한국原子力研究所敷地內에서도 最近 3年間에 무려 2.7배로 年平均値가 急增(76年: 0.03ppm, 77年: 0.044ppm, 78年: 0.071ppm)됨으로써 事實上 深刻한 樣狀을 띄고 있다. 즉 年間을 통하여 1時間値의 1日平均値가 0.05ppm 以下인 日數가 70% 이상 維持되어야 한다는 同基準은 76年度(83.2%)만 充足될 뿐 77年度에는 67.4%로서 未達되고 있으며 78年度에는 35.9%밖에 안되는 惡化傾向이다. 또 1時間値가 0.15ppm 未滿이어야 한다는 基準을 바탕으로 해서 評價할 경우에는 76年度에 0.8%, 77年度는 1.2%가 超過되었으으며 78年度에는 9.5%나 超過되고 있다.

한편 釜山등 地方工業都市의 工場地域은 隣近 住居地域에서의 SO_2 濃度보다 50倍程度 높게 측정되고 있는데, 특히 蔚山工業團地인 경우 工場

地域의 SO_2 濃度가 平均 0.093ppm이며 住居地域에서는 0.021ppm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나. 水質汚染現況

BOD인 경우 漢江이 2.6~15.8ppm, 洛東江이 24.5ppm 榮山江이 5.2ppm으로서 각각 河川 및 湖水의 甲水域에 대한 水質環境基準을 超過한 것은 물론 乙水域에 대한 基準도 超過하고 있으며 특히 漢江下流와 洛東江의 下流는 丙水域에 대한 基準도 超過하고 있으며 또 이와같은 水質汚染으로 인한 漢江에서의 追加淨水用藥品費만 따지더라도 84년까지는 累計 2,000億원에 달할 것으로 推定되고 있다. 또 洛東江에서 取水해서 工業用水로 쓰고 있는 한 纖維工場인 경우 不過 2년도 되지 않은 짧은 期間內에 거의 2倍(純水인 경우)에 달하는 工業用水淨水單價의 急增이 기록되고 있다. 따라서 適切한 水質保全管理를 하지 않는 限 河川水質汚染이 工業經濟에 미치는 영향은 致命的이며 極端的인 事態까지 誘發할 수 있다는 念慮가 앞선다.

만일 河川의 水銀으로 인한 汚染度를 보면⁵ 漢江인 경우 물고기의 cd量이 1.2ppm(金浦近方), 물고기의 Hg는 2.9ppm(金浦近方) 그리고 물中 Hg濃度는 最高 2.70ppb(第2 漢江橋附近)에 달하고 있으며, 洛東江에서는 最高 1.39ppb까지 觀測되고 있다. 多幸히 人體의 健康保護目的으로 設定한 總水銀에 대한 基準인 5ppb에는 未達이나 그렇다고 해서 安心할 수 있는 것은 아닐 것 같다.

다. 農藥殘留物에 의한 農作物汚染現況

1967年度에 調査한 全國 主要河川流域의 水中 水銀殘留物의 平均濃度는 0.131ppm이었던 바 1971年 3月부터 撒粉用水銀劑農藥의 使用이 禁止된 以來 계속 減少하여 1974年度에는 0.01~0.02ppm가 됨으로써 거의 67年度濃度平均値의 $\frac{1}{10}$ 로 되었다. 그러나 金浦産에는 0.210~0.350ppm, 浦項産에는 0.110ppm 정도의 高濃度로 나타나 있다.

이와 같은 減少는 政府의 積極的인 環境保全 施策이 奏効한 것으로 높이 評價할만한 것으로 본다.

라. 騒音汚染

서울都心地 市街邊에서의 소음도는 1972年을 고비로 해서 점점 낮아지고 있으나 反對로 住居 區域에서는 增加하고 있다. 이는 經濟成長과 더불어 生活水準이 向上되어 各種 家電製品이 널리 普及·利用되고 있다는 事實과 區劃整理가 잘 된 住宅街의 道路에 自家用乘用車 등 各種 車輛의 通行量이 增加됨에 유발된 現象이라고 본다. 즉 騒音도가 10dB만 되더라도 電話通話가 困難하며 80dB에서는 매우 高聲으로 對話를 해야 할 程度인데 居室의 眞空淸掃器는 80dB, TV 세트는 70~80dB, HiFi 電蓄은 100dB, 乘用車는 90~100dB 그리고 모터 싸이클은 100dB의 소음도를 내고 있다.

3. 環境保全의 生活化

序言에서 잠깐 言及한 바 있으나 環境保全의 生活化란 科學의 生活化와 비슷이 그 對象을 主婦에만 局限시켜서는 所期의 目的을 達成하기 어려울 것이다. 특히 環境保全의 生活化에 있어서는 모든 個人이 汚染發生源이자 동시에 그 被害者이므로 모든 個人이 汚染排出量을 汚染源에서부터 源泉의으로 最少化시키는 路만이 最善의 路임을 먼저 터득해야 할 것이다. 또 그와같은 價値觀이 定立되었을 때 비로소 이를 바탕으로 한 生活化가 重要하게 되며 또 行動으로 即刻 옮겨야만 實効를 見올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제는 教育水準도 全世界的으로 보아 상당히 높은 한국이기에 環境汚染의 可恐性이나 環境保全의 必要性程度는 大部分의 國民이 알고 있는 것이 事實이기 때문에 問題는 無知·無學의 所致라기보다는 눈앞의 利益에 너무나 눈이 먼 個人主義的 利己爲主의 卑劣한 生活態度가 自己의 知識과 自己의 良心까지 背反하는 傍若無

人의 生活로 轉落됨으로써 正當하고도 合理的인 것들마저 無視하거나 저버리는 生活로 習性화된 것에 原因을 찾을 수 있다고 본다. 따라서 放從은 즐거도 民主自由의 참 뜻과는 乘離가 있는 非現實的 知識 속에 環境保全의 實利를 저버리고 있는 오늘날이 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면 社會를 構成하는 各分野別로 環境保全의 生活化를 어디에 力點을 두고 對處해야 할 것인가를 略說하고자 한다.

가. 主婦가 主構成員인 住居環境에서의 環境保全

모든 環境問題는 人間活動에 比例해서 늘기 마련임을 먼저 알고 넘어가야 할 것이다. 따라서 日常生活에서의 資源의 消費量 抑制처럼 環境保全에 有益한 手段도 드물 것이다.

이 點 主婦들이 할 수 있는 資源의 消費量 抑制와 環境保全의 路 가운데 가장 가까운 것은 中性粉末合成洗劑의 適正使用을 위한 生活의 科學化라고 본다.

즉 市販中인 弱알카리性 粉末合成洗劑는 그 봉지 겉에 물 2L(한되) 당 4g(큰 스푼 하나) 정도 섞는 것이 가장 좋다고 分明히 그 使用方法을 明示하고 있으나 이것을 읽고 使用하는 主婦는 거의 없거나 읽어도 대충 섞어버리는 것이 常列인 것 같다. 그 결과 都市周邊의 河川은 合成洗劑의 殘留物인 ABS라는 肝臟機能障害를 유발하는 有害物質의 濃도가 急增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거품을 일게 해서 淨水單價를 크게 증가시키게 함으로써 國民의 健康을 침범함은 물론 市民의 支出을 加重시키는 厄利석음을 自招하고 있는 것이다. 즉 沒知覺한 消費劑의 過·濫用이 우리에게 주는 負的영향은 生活環境에 미치는 質的惡化 뿐만 아니라 經濟的, 保健衛生的 및 自然生態學的 破壞 등 多樣하게 우리 스스로를 매질하게 되는 것이다.

2000年代의 1000億달러의 輸出, 8,000달러 所得을 爭取하려면 年間水資源需給量이 최소한 357.6억톤은 소요된다는 오늘날의 展望이다. 이것은 오늘날의 河川水 利用率 15%를 57%로 끌

어 울려야 可能하다는 얘기이다. 설사 量的인 確保가 實現되더라도 質的으로 汚染되어 있다면 問題는 정말 건잡을 수 없는 深刻性을 띠울 것이 뻔하다.

또 水洗式便所에 連結된 淨化槽의 虛構性도 큰 問題이다. 淨化槽가 있는限 義務를 다했다고 생각하면 큰 誤算인 것이 淨化槽의 機能이 잘못된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不拘하고 大部分의 市民은 機能이 喪失된 淨化槽에 汚水を 流入시킴으로써 無意識間에 汚水を 그대로 河川에 放出하는 結果를 자아내어 河川汚染源이 되고 있으며 그러면서도 企業側의 工場廢水만 非難하는 것이다. 물론 工場廢水가 質的으로 더 有毒한 것이 많은 것도 事實이며, 現在 企業이 汚染防止施設을 위해서 投資한 比率(0.3%)만 보더라도 궁극적으로는 하나하나의 結果를 自招하고 있는 것이 事實이나 企業도 사람인 國民이 運營하고 있는 限 環境保全의 生活化를 家庭에서만 强要할 수는 없을 것이다.

또 生活環境에서의 騒音에 무딘 것이 안타깝운데 특히 主婦들의 騒音에 대한 注意를 환기시키고 싶다. 즉 騒音도가 35~45dB만 되어도 安眠妨害가 되며, 50~60dB에서는 會話妨害, 그리고 85dB 이상일 때에는 神經質의 性格形成이 됨으로써 각종 精神의 障害가 誘發되는데 居室에서 使用하는 各種 家電製品의 騒音도가 前述한 바와 같고 또 ジェット航空機 離着陸時에는 115dB까지의 소음도를 내는데도 불구하고 大部分의 國民이 이에 대해서 無關心하게 다루고 있는 것이 안타깝다. 특히 騒音은 消化機能의 抑制效果도 있으며 또 妊娠初期의 胎兒에게는 決定的인 영향을 준다는 얘기인데 오늘날의 우리나라 住居區域 소음도는 生活水準의 向上과 더불어 늘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愚話를 하나 例舉하겠다. 몇 年前 Y大學의 環境關係專門家가 金浦空港 主滑走路方向 住宅街에서 騒音도를 조사한 다음 이것을 發表하였더니 그 地域에 住民들의 아우성 때문에 혼이 났었다는 얘기이다. 즉 그 조사결과가 발표됨으로써 집값이 떨어졌다는 抗議였는데 이쯤되면 科學의 生活化가 어딘가 잘못된 것 같

도 하다. 問題는 당장의 利益이 아니라 國民全體의 利益이 되어야만 만족하는 國民의 良識에 바탕을 둔 實質的인 科學의 生活化를 이룩하는 슬기와 접근방식을 하루빨리 찾아내야 할 것으로 믿는다.

經濟成長이 生活水準을 向上시킨 結果 우리 生活環境에서 쏟아져 나오는 固體廢棄物 또한 大端하다. 1人 당 하루 排出量이 약 1.38kg인 서울에서만도 하루에 1萬톤이며 2日間에 3.1 億磅에 맞먹는 量이 排出된다는데 그나마 3年 뒤에는 이들 廢棄物의 埋沒地마저 없다는 實情이고 보면 資源으로서의 回收價値도 있고 再循環價値도 있는 쓰레기는 回收處理해서 再循環시킬 필요가 있음을 切感한다.

즉 구리, 납, 니켈, 종이류, 철, 유리 등 7種의 高체폐기물을 미국에서 재순환시키고 있는 率로 한국에서도 재사용 한다면 年間7,000~8,000만 달러(1974年度 기준)에 달하는 外貨를 節減할 수 있다는 계산이 가능한데 이는 每年 京釜高速道路 하나를 建設할 수 있다는 경제적 여유를 말한다.

특히 종이 1톤을 생산할 때 큰 나무 17樹가 伐採되어야 하는데 종이를 아끼는 일이 곧 植木이요, 育林이오 또 山林綠化이며 廢紙의 再循環이 곧 깨끗한 水資源의 量的確保에 중요한 구실을 한다는 生態系의 順理를 깨달아야 할 것이다.

나. 公務員의 環境保全努力

우리나라 燃料使用量을 보면 77年度에 5,200만 톤(煉炭으로 換算)인데 2000年代에는 그 8.3배인 4억 4천 800萬톤이 된다고 推定되고 있다. 重化學工業의 建設도 좋고 國力의 伸張도 모두가 바라는 國家의 至上課題이다. 바로 여기에 經濟企劃의 슬기가 必要한 것이다. 가령 보다 汚染이 적거나 汚染때문에 誘發되는 負의影響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경제계획을 수립할 수는 없는 것일까? 또 風速이 2배가 되던 空間의 汚染物濃도가 $\frac{1}{8}$ 이 되고, 풍속이 3倍인 條件下에서는 空間濃도가 $\frac{1}{27}$ 이 된다는 간단한 計算을 考慮에 넣은 國土利用計劃을 現實的으로 適用하는

合理的인 接近態度를 取할 수 없는 것일까? 局地的인 最大混合깊이(maximum mixing depth)가 1/4이 되면 大氣汚染物의 空間濃度는 64배로 된다는 算術的基礎를 알면서도 이를 外面하고 大單位開發團地의 敷地選定을 無作定强行하여야만 되는 것일까?

또 環境保全의 複雜·多樣性이 있기에 綜合的인 對策을 세워서 組織的으로 다루어야 한다는 當爲性을 왜 外面하면서 環境을 質的으로 保全하려는 國民적 여망과 동떨어진 行정을 해야 하는가? 이제 우리는 汚染防止技術의 開發과 調査研究의 綜合的인 調整도 해야 하고 또 排出量의 抑制를 源泉的으로 解決하는 슬기를 發揮해야만 되는 것이다.

成人의 男子인 경우 1日 1人 당 3L(女子와 10세 미만의 남자는 2L)의 물을 마시고 1.4L의 尿, 0.1L의 糞, 0.65L의 땀 및 0.85L를 呼吸 등 보이지 않게 排出하고 있는데, 人口 4천 5백만명이 될 것으로 추정되는 1990年代의 우리나라 都市化率은 최소한 75% 以上이 되리라는 전망이다. 따라서 오늘날 우리 나라의 대도시가 맞고 있는 環境오염문제를 적절히 대처하지 않는 한 보다 심각한 문제가 全國的으로 擴散되거나 廣域化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특히 10萬km²도 안 되는 협소한 국토에서 수자원의 합리적인 수질 보전대책이 없는 한 문제는 점점 클 것이니 국가정책을 다루는 각급 공무원은 모든 정책입안단계에서 고려해야 할 事前投入因子로서 環境영향평가를 우선적인 바탕으로 해서 얻은 제반 인자를 力點을 두고 넣어서 고려해야 마땅할 것이다.

다. 企業人이 生活化해야 할 環境보전

앞서도 잠깐 언급했지만 우리 나라의 環境 오염방지 시설투자율은 0.3%밖에 안 되고 있다. 이는 先進工業國인 미국의 16.1%, 서독의 7.7% 그리고 일본의 16.3%에 비교하면 정말 어이 없을 만큼 근소한 투자율이다. 사실 0.3%라는 투자율로 오염방지시설을 설치 운영한다면

라도 폐수중 폐기물의 90% 이상이 자연생태계에 방류된다는 추정을 합리화시킴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따라서 사실상 하나하나의 결과로 끝장나는 셈이다. 더우기 시설만 해놓고 운영마저 하지 않을 정도로 環境에 대한 가치관이 희박한 우리나라 기업풍토에서 볼 때, 누구를 위한 기업이며 누구를 위한 環境보전인지 판단키 어려울 뿐이다. 그리고 공장건설단계에서 미리부터 사전투자를 한다면 사후에 투자할 경우보다 $\frac{1}{1.5}$ 내지 $\frac{1}{10}$ 로 충분한데도 불구하고 이를 마다한다면 스스로 자기 무덤을 파는 격이 아닌가 싶다. 굴뚝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인 경우 排煙速度가 풍속의 2배보다 클 때에는 공장부근의 직접적인 피해를 막을 수 있으나 배연속도가 풍속과 같거나 보다 작을 때에는 굴뚝 바로 아래쪽에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얼마 전까지만해도 각 공장에서는 이를 묵살하였던 것이다.

문제는 기업이 배출한 環境오염물질이 일단 環境에 퍼지게 되면 그 오염물의 피해는 오염배출자도 받게 되고 선량한 일반대중도 받게 된다. 不良食品製造業者가 自己家族에게 自己會社製品을 먹지 말라고 했다해서 社會의 指彈을 받은 일이 있었는데 이와같은 人面獸心의 非人間的 企業人은 언젠가 天罰을 받을 것이리라!

지금까지는 無限한 自由材로서 萬人이 즐기던 공기와 물이 없는지는 몰라도 이제부터는 完全無缺한 自由材일 수 없게 된 것이다. 不良食品을 자기 가족만 안 먹게 함으로써 健康을 유지한 子孫이 그것을 먹은 사람의 後孫과 結婚하게 되고 이와같은 遺傳學的 劣性因子가 反復連鎖되는 가운데 유전인자 共鳴현상이 일게 되면 不具兒도 나올 수 있고 畸型兒도 낳을 수 있음을 알아야 할 것이다. 그것은 企業人이나 그의 家族도 한낱 社會의 構成因子에 불과하기 때문에 當然한 結果로 귀착된다. 再三 一部沒知覺한 企業人들의 大悟覺醒과 社會에의 積極的인 寄與를 促求하는 것이며, 黃金보다는 良識을 尊重히 여기면서 環境보전에 기여하길 바란다.

라. 言論界가 해 주길 바라게 되는 환경보전

신문에 환경오염에 관한 기사를 취재, 편집, 인쇄, 배포하는 과정에도 환경오염은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주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하다. 세세이셔널한 기사를 大門작 같은 글씨로 한때 活字化한다해서 환경오염이 방지된다는 뜻이 아니라는 말이다. 최근의 한 통계에 의하면 환경문제를 社說(D日報와 J日報)에서 취급한 것이 65, 66 및 70년에는 각각 10편미만이던 것이 71년에는 22편, 그리고 76년에는 64편을 초과하고 있다. 또 記事數는 65년에 44건이던 것이 76년에는 879건을 넘고 있다. 76年度에 게재된 社說인 경우 환경오염과 생활환경을 다룬 것이 66%(J日報) 및 69%(D日報)이며, 國土利用과 自然保護를 다룬 것이 각각 34% 및 31%이었다. 참으로 많은 것이 변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事件기사와 같은 斷片의인 기사보다는 국민 스스로가 참여해서 환경보전에 직접 기여할 수 있게끔 啓導하는 企劃기사가 더 값있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싶다. 국민의 良識水準이 높은 先進工業國에서는 住民運動이 환경보전의 큰 嚮導적 몫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住民스스로가 환경보전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계획제동기사를 연재해주는 것이 국민의 환경보전 생활화에 지대한 힘이 되리라 의심치 않는 바이다.

4. 結 言

興味있는 日日連續劇이 放映(또는 放送)되는 동안에는 밥상도 옆에 놓고 無我之境으로 청취하던 家庭主婦도 다음 프로가 生活科學 또는 이에 준하는 프로라고 豫告만 되면 이제 자기들이 청취할 프로가 아니라는 듯 밥상을 들고 나가는 우리들의 主婦는 아니겠는지? 환경보전에 관한 프로 또한 主婦의 關心 밖에 있기 때문에 현대

와 학대를 받았다면 그 원인이 무엇인지 분석·평가·개선할 수는 없는 것일까? 電燈을 너무 자주 켜다 껐다하면 電力消耗가 많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초저녁에 한번 켜 다음에는 밤늦게 까지 계속 켜두는 愚를 우리는 자주 보게 된다. 과연 어느 쪽이 더 많은 電力消耗를 招來할 것인가? 또 그 電力浪費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燃料가 소모되며 그 결과 大氣汚染物은 얼마나 늘 것이며 또 우리의 환경을 얼마나 오염시키겠는지?

휴—즈가 나간 것도 모르고 男便이 귀가할 때까지 暗黑 속에서 방황하는 主婦가 없겠는지 궁금하다. 그러나 국민학교, 중학교 그리고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다 배운 상식이면서도 電氣가 무서워서 이를 수리할 줄 모른다면 초·중·고 등교육의 허구성이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문제는 실험을 못해본 수박 걸핍기식 교과서 중심의 교육이 빚어낸 비극일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이다.

환경보전의 생활화에서도 비슷한 문제점을 많이 안고 있다고 본다. 문제는 無知의 所爲가 아니라 無視 내지 傍觀하는 데 原因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본 小考는 국민 스스로가 환경에 대한 새롭고 알뜰한 가치관을 정립해서 직접 환경보전운동에 참여해야 한다는 것이다. 쓰레기의 양을 줄이는 슬기, 전력소모를 최소화시키는 마음가짐, 물이나 물자를 절약하는 생활, 정화조의 기능을 재검해서 汚水의 放流量을 최소화하는 일, 가루비누를 적정하게 사용하는 알뜰한 마음, 쓸모없이 연료를 남용하지 않겠다는 슬기찬 마음가짐 등등 꼭 밖에 나가서 쓰레기를 줍지 않더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환경보전의 길은 얼마든지 있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물질과 자원의 절약이 곧 환경보전이요 또 오염물 배출량을 배출구에서부터 최소화시키는 생활이 곧 환경보전의 생활화인 까닭에 앞으로의 문제해결은 이와같은 接近方式을 취함이 효과적일 것으로 확신한다.